

95. 섬유제품 불량 상담 Q&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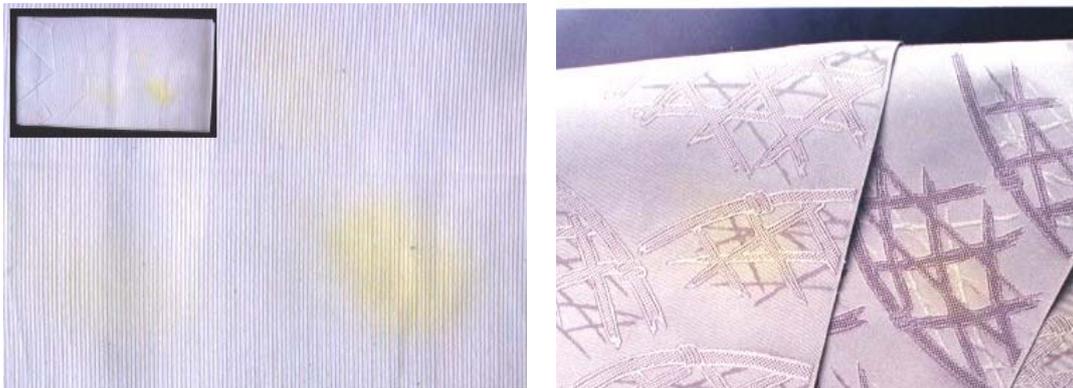
- (2) 여성용 허리띠의 변색 -

Q. 옷장 속에 넣어 둔 夏帶(여름철에 여성이 매는 얇고 좁은 띠)가 부분적으로 노랗게 변색되었다. 향료와 같은 냄새가 났으나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았었다. 원인은 무엇일까?

A) 보관 중에 띠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향주머니에 의한 황변사고로 사료됨.

해설)

- 우리 주위에는 향기나는 상품으로 가득 차 넘치고, 향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. 이번 불량도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중에서 발생한 불량이라고 할 수 있음.



<사진> 향주머니와 접촉된 부분이 변색되어 있음.

- 향주머니와 접촉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누렇게 되어 있음. 이러한 변색부분은 띠가 접혀있는 상태에서 위에 무엇인가 올려놓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.
- 의복의 보관시에 이런 종류의 향주머니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쯤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황변사례가 눈에 띄게 된 것은 최근 3~4년 전부터임. 그들 모두가 보관 중에 상품 위에 올려놓고 있는 향주머니가 관련된 불량이 많았음.

- 이러한 사례에 공통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상임.
 1. 흰 바탕이나 옅은 색의 상품에 많이 볼 수 있고, 밝은 황색으로 변색하는 것이 많음.
 2. 황변부분에는 특유의 냄새가 강하게 남아 있음.
 3. 옷감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황변이 아래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많고, 그러한 경우 소재나 가공의 차이에 따라 황변 정도에 큰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있음.
 4. 황변 주변부위는 희미해지고 있음.

-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 사례에서도 거의 같은 상황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역시, 향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가스 성분의 영향으로 사료되나,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인과관계를 화학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려운 일임. 다만, 향주머니의 사용 실태를 보면 보다 냄새의 효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향주머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가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임.